

부산시, 읍면동 마을건강센터 확대 계획

부산시 건강정책과 건강도시팀
2022. 7. 21.

부산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계획과 함께, 15분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 건강을 관리하는 ‘마을건강센터’를 크게 확대 나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 7월 ‘마을건강센터 2030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마을 건강센터 확충 계획을 밝혔다. 부산시의 마을건강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도시재생시설 등 마을 내에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기초 건강측정과 상시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주민건강공동체도 운영하는 시설이다. 시는 현재 71개 마을건강센터를 오는 2030년까지 205개 전체 읍·면·동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 회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산시 마을건강센터의 운영 방향을 담아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였는데, ‘주민이 함께 만드는 모두가 건강한 마을’을 목표로 ▲마을 건강수준 향상 ▲지역 내 건강 격차 완화 ▲건강자치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 3개의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가게 된다.

시는 먼저 ①지속가능한 마을건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 건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건강 자치활동을 활성화한다. 이어 ▲마을 건강센터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 확보와 함께 표준 운영지침 마련에도 나선다. ▲건강도시사업지원단을 바탕으로 마을건강 사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②주민자치 지향 건강공동체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마을건강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건강공동체를 형성해 이를 활성화하며 ▲마을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③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건강관리를 실천한다. ▲주민 건강관리군을 구분·등록해 일상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위험군 주민을 찾아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며 ▲자조 모임을 통해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건강사례 관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금3동 마을건강센터



초량6동 마을건강센터

출처: 부산시, (2022). 부산시, 2030년까지 205개 읍·면·동에 마을건강센터 설치한다! 7월 21일 보도자료.